

# 회 의 록

회 의 록

장 소	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	일 시	2023. 2. 10(금) 10:00 ~ 12:00
참석자	충남도청 : 박우장, 강현주, 김민성 충남연구원 : 방만기, 임병철, 김혜정, 김다희 자문진 :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전형성, 충남일자리진흥원 석진홍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수동,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노원균, 당진상공회의소 최태석,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김재준, 중소기업중앙회 장정현,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원건,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최경운		
회 의 주 제	제18차 충남경제 모니터링 포럼 - 주요 안건 : 충남 경제상황 점검, 복합 경제위기 충남 대응방향		

[ 중소기업 수출 ]

- 충남 수출 30% 감소는 대기업 실적감소가 커서 나타난 것임
- 중소기업 수출은 괜찮은 상황, 연간 누계실적은 4~5% 증가
  - \* 매출의 30%가 수출인 중소기업은 오히려 최근 원자재, 물류비 감소로 안정적
- 내수 중심의 안정적인 중소기업이 수출을 해보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꺾임
  - \* 내수 침체로 자금 사정이 불안정, 금리인상, 고용 등의 문제가 원인
- 중국이 기술격차를 따라오고, 품질도 향상되면서 수출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
  - \* 화장품이 대표적인 예, 유사한 현상의 제품들이 증가추세
- 현재 중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문제, 교류가 힘든 상황
  - \* 베트남, 인도 등 판로를 개척하는 중, 도에서 정보공유 등 정책적 지원 필요
- 탈중국화가 필요한 상황, 그러나 아세안 시장이 중국 시장의 대체가 가능할 것인가는 의문
  - \* 공급망 위기와 함께 판로를 다른 시장으로 개척하는 방안 필요, 정책적 지원 중요

[ 고용 ]

- 고용 수치만 보면 위기는 아닌 상황, 그러나 실제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서비스업 분야
- 2차 산업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뒷받침 필요, 3차 산업 일자리는 쉽게 사라지기 쉬움
- 지금의 고용 현상은 “job full recession”(비정형화된 현상)
  - \*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중하위 계층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실업자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, 경제침체 상황인데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이 지속되는 현상
- 고용률은 거의 70% 수준, 그러나 일할 사람이 부족한 고용 위기
  - \* 고령화, 65세 이상 근로자 다수, 일하고 싶지만 일터가 부족
  - \* 인구감소도 심각한 문제
- 외국인 노동자 수급 부족, 임금도 상승 ⇒ 결국 소상공인, 자영업자 부담 증가로 나타남
- 중소기업도 외국인 근로자 필요, 실제 급여 수준도 내국인과 유사한 수준
  - \* 일감은 그대로인데 현장 근로자 부족으로 생산감소
  - \* 내국인은 현장일 거부, 작은 회사도 거부 ⇒ 결국 자동화로 전환
- 중소기업 구인난 심각, 노동생산성 대비 비정상적인 임금 상승 현상, 숙련도 축적이 필요하나 유도할 방법이 부재
- 충남은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잃어 가는 것도 문제, 고민이 필요한 시기

- \* 주력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도가 낮아짐, 자동화로 전환되는 시기
- \* 200억 이상 기업은 자동화 수요가 많은 상황

#### [ 공공요금 인상 ]

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가격(에너지 포함) 상승, 결국 제조원가 상승
- LNG 가격이 국제가격과 연동되면서 급등, 고무, 플라스틱 등의 업종 생산비용 증가
  - \* 실제 고무, 플라스틱, 사출 관련 업체 사례를 보면, LNG 가격상승으로 손실을 예상하지만 계약상 생산은 지속하는 상황
  - \*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제조원가 상승, 매출은 증가하나 영업이익 하락으로 나타남
- 철강산업은 전기, LNG 가격 부담이 높은 업종, 건설경기 하락도 문제, 어려움 예상
  - \* 건설경기 하락으로 시행사 자금조달 문제, 공사가 지연되거나 취소, 철근 수요감소
- 이차전지, 배터리 관련 후방장비산업은 호황, 자동차도 기술집약적 부품업체는 호황
- 지난해 하반기에는 파산, 기업회생이 많았음, 최근 정부 정책으로 연체율 감소, 향후는 우려
-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요금 인상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
  - \* 일반용(상업) 전기요금은 7% 이상 인상, 도시가스는 16~17% 인상
  - \*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안이 있으나 가격 경직성(소비자와의 신뢰, 주변 경쟁자와의 눈치) 때문에 어려움
- ⇒ 대출금리 완화 방안과 함께 비용부담 해소방안 필요
- 상권정보시스템 상권분석 부분에 주요 8대 업종기반의 매출지수 제공(2개월 시차)
  - \* 매출지수로 보면 코로나19 영향은 거의 회복, 비용부담은 여전한 상황
  - \* 영업은 하는데 실속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버티는 중
- 소상공인은 주로 소매업, 음식업, 비대면 온라인 상점과의 경쟁도 심화
  - \* 지역 기반의 로컬푸드를 활용한 매장 지원 등의 정책 필요
- 중소기업, 소상공인 모두 현금 유통성에 따라 위기, 기회가 될 수 있음
- 건실한 기업은 한시적으로라도 금융지원 필요

#### [ 정부 및 지자체 정책방향 ]

-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을 지역화폐로 하는 방향 제안
- 지역화폐 효과 있음, 카드포인트를 지역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
-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가 바우처를 검토 중에 있음
- 중소기업은 단기회복 불가,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임

